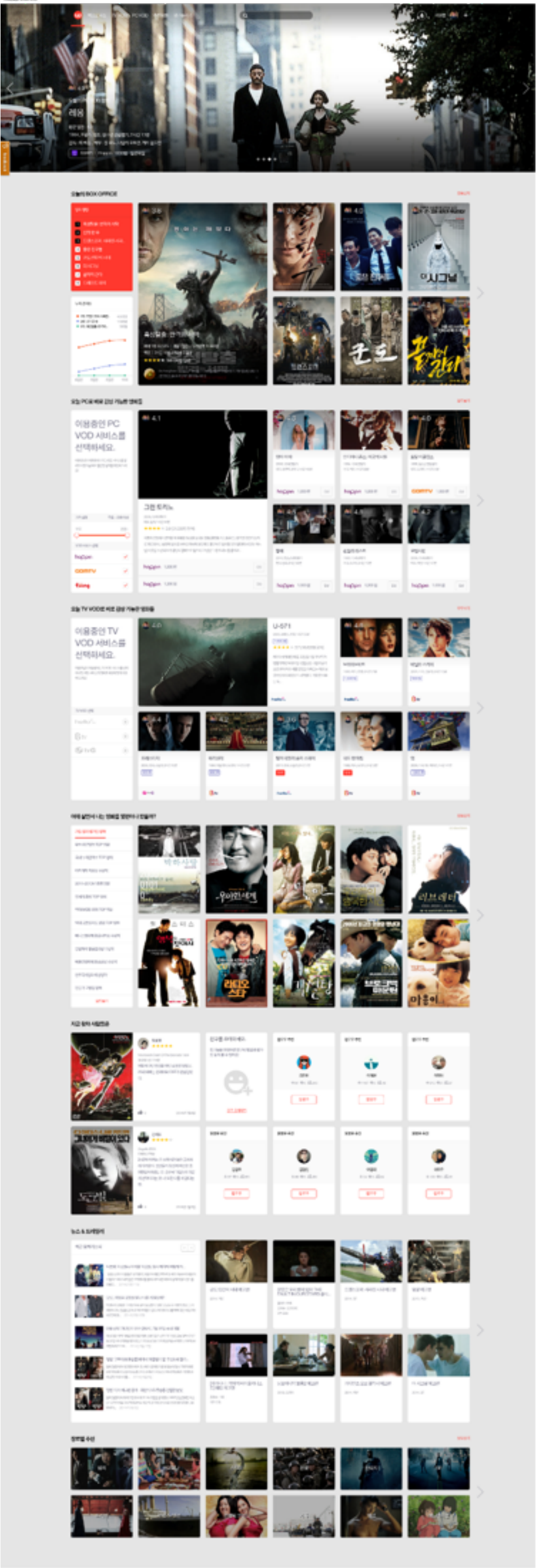


자주 가는 웹사이트의 레이아웃 분석하기

131053 이원호

분석 한 웹사이트 - ‘왓차’ <https://watcha.net>



| |
|--|
| <div>상단 네비게이션 바 float:left 속성을 통해 를 순차로 배열.</div> |
| <div>버튼 클릭에 따른 콘텐츠 전환 뷰 버튼은 를 통해 배열하고, class 부여를 통해 달라지는 속성 부여.</div> |
| <div>일단 여기부터 마지막 div까지 section-wrapper라는 클래스의 <div>로 하나로 묶어내고 있다. 이후 를 통해 각각의 section을 차례대로 배열하였다. 해당 section 내부의 요소들을 배열하는 방법은 각 요소에 top-0, top-1, left-1 등의 적절한 top과 left값을 가진 클래스명을 이용하여 요소의 위치를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었다.</div> |
| <div>요소들의 배치는 앞서 언급한 미리 위치값이 들어있는 클래스들을 이용하여 배치하고 있다. 특히 좌측 하단에 있는 slider의 경우 각 thumb의 위치에 따라 style="left: " 값의 변경을 통해 모양을 바꾸고 있었다.</div> |
| <div>이 3개의 섹션은 top, left 등의 위치 클래스를 이용하여 위치지정을 한 것 이외에 특별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.</div> |
| <div>뉴스&트레일러 섹션의 가장 좌측에는 화살표 버튼을 통해 news-list 클래스를 가진 을 넘나들 수 있었다. 추가적으로 show라는 클래스를 통해 현재 화면에 보여야 할 을 다만, 개발 당시 고려를 하지 못한 건지 버그인건지 버튼을 누르면 이 무한대로 추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.</div> |
| <div>바로 위와 해당 섹션의 경우 flicking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. 화면 우측의 화살표를 누르면 vertical-list라는 클래스를 가진 div를 -webkit-transform:translateX를 이용하여 다음 요소들을 뿌려주고 있었다. 윤지수 교수님께서 플리킹을 강조하신 이유를 다시금 느끼는 순간이었다.</div> |